

성관련 특성에 따른 여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가치관의 차이

고명숙¹ · 석정원²

¹삼육대학교 간호학과, ²삼육대학교 대학원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Perspectives of Sexual Value of Female Students as Related to Sexual Characteristics

Myung-Suk Koh¹, Jung-Won Suk²

¹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Seoul

²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perspectives of sexual values for female students as these factors related to sexual characteristic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835 girls in junior or high school from Seoul and Kyunggi province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F-test and Scheffe with the SPSS 14.0 WIN program. **Result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or sexual knowled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girls from homes with conservative atmosphere and for those who had experiences related to porno. Second, related to sexual attitudes, students who had experience related to porno, were significantly more positive, and had a more open attitudes than students with no experience. Third, for perspectives of sexual value, students who perceived a conservative home atmosphere, who had boy friend, and who had experiences related to porno, had a more positive sexuality, and attitudes towards sexual equality.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 sex education programs for both school and parents so that teachers and parents can guide these students appropriately.

Key words: Student, Sexual behavior, Sexuality

서론

연구의 필요성

인간에게 있어서 성은 생육과 번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청소년기는 성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성에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인 성(gender), 그리고 전인적 성(sexuality)요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가정과 학교생활 및 건전한 이성교제 등을 통한 지식적, 사회적, 이성적 성관련 지식을 올바르게 형성할 때 향후 건전한 한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이란 용어가 라틴어의 adolescere 즉 성장 혹은 성숙으로의 성장이란 의미에서 유래된 것을 보더라도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상황은 매우 부정적이며

이들의 미래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보고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매일 접할 수 있는데 그 일례로 우리나라 십대 여학생의 성행태 조사(Chang et al., 2001)에서 연구 대상자 중 이성 교제율 48.1%, 성 경험률 4.5%, 임신 경험률 0.5%, 낙태 경험률이 0.4%,性病 경험률 0.8%, 피임 경험률이 3.4%에 이른다고 한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성문제는 이들이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 태도 및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전에 성행태가 선행되어 그 결과, 계획되지 않고 원치 않는 청소년의 임신으로 말미암아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상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Fielding & Williams, 1991)는 데 있다.

청소년의 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관련 특성들로는 성에 대한 부모의 관점 즉 가정분위기, 이성교제 경험, 성교육 경험, 음란물 접촉경험, 종교유무, 부모생존 유무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중 가

주요어: 학생, 성태도, 성가치관

Address reprint requests to: Myung-Suk Koh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26-21 Gongneung 2-dong, Nowon-gu, Seoul 139-742, Korea

Tel: +82-2-3399-1586 Fax: +82-2-3399-1594 E-mail: kohms@syu.ac.kr

투고일: 2010년 12월 21일 / 1차수정: 2011년 3월 21일 / 2차수정: 2011년 6월 7일 / 게재확정일: 2011년 7월 7일

정분위기, 이성교제 경험, 음란물 접촉경험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정의 경우,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건전한 가족중심의 성 지식 및 태도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Kim & Jung, 1993)에도 불구하고 Choi (2003)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99명 중 5명으로 5.1%에 불과하며 오히려 가정에서 성을 금기시하고 폐쇄적이며 부정적인 의미로 덮어 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청소년 역시 성문제를 가정에서 논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Grauggard, Rasmussen, & Boisen, 2002). 그러나 아버지의 성 개방 정도가 여중생들 자녀의 성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Park & Moon, 2003)을 볼 때 성과 관련된 가정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관련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성교제 경험의 경우 Kim과 Jung (1993)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 대상 청소년의 68.95%가 이성교제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의 성 문제는 이성교제의 시작과 함께 발단되는 것이므로 이성친구 교제에 대한 이들의 관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음란 매체물로는 1990년대까지는 영화, 도색잡지, 또는 비디오 등을 들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대중매체에 더하여 컴퓨터가 음란물을 전달하는 주된 매체로 등장하고 있다(Kim, Lee, & Jung, 2001). 음란물 접촉의 경우 우리나라 초등학교생의 14.4%, 중학생 30.0%, 고등학생 49.0%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생의 18.1%, 중학생 24.9%, 고등학생 2.5%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음란물을 이용하고 있는데(Korea Telecom Culture Foundation, 2004) 이는 Kim, Lee와 Jung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음란물 접촉 및 비접촉 청소년 간에 성충동과 성욕구 등이 접촉청소년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볼 때 우려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음란매체물 접촉은 직접적으로 성비행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과 그릇된 환상을 심어 줄 수 있어 청소년의 비행, 성행동, 성태도 및 성가치관 등의 왜곡, 그리고 성범죄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Paek & Chaung, 2006)을 볼 때 음란물접촉 경험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결국 청소년의 성문제는 성욕으로 인한 성충동의 조절 또는 자제 능력은 아직 미성숙하여 확고하고 올바른 성의식이나 성지식, 성태도, 성가치관 등이 확립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성을 묘사한 매체를 접하고 또한 성인과 같은 성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육체적 성은 성인을 모방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성운리의 발달은 미성숙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 있다(Kim & Lee, 2000). 그러나 청소년기에 확립된 태도나 가치관은 이들의 인격적 요소는 물론 결혼 전 성관념 및 결혼 후 성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Kim, Choi, Kim, Yang, & Lim, 1999)을 고려한다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가치관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요인들이 성과 관련된 특성들 중 가정분위기, 이성친구교제 경험, 음란물접촉 경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들을 지도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Kim과 Lee (2000)에 따르면 청소년의 현재 겪고 있는 성고민 내용, 성지식 및 성태도 내용 및 수준정도, 그리고 성교를 하는 비율 및 그 이유들을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다르다고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관련 특성 중 가정분위기, 이성친구교제경험, 음란물접촉경험 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및 성가치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여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가치관을 파악한다.

셋째, 성관련 특성에 따른 여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가치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성관련 특성에 따른 여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가치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여자중학교 2, 3학년 및 여자고등학교 1, 2학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 표집된 서울 및 경기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 285명,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 282명, 인문계 중학교 2개교 268명으로 총 6개교 835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성지식

본 도구는 Lief와 Payne (1975)이 개발한 Sexual Knowledge & Attitude Test (SKAT) 도구를 Kim (1986)이 번역한 것을 본 연구에서 그 문체나 서술을 재수정·보완하여 간호학 교수 2인과 국문학 교수 1인에게 자문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총 문항 수는 25문항이었다.

본 도구의 구성은 2차 성징, 몽정, 포경수술, 월경주기, 사정 등을 질문한 신체 생리적 측면 9문항, 자위행위, 성적쾌감, 호기심 등을 질문한 심리적 측면 6문항, 성폭력, 순결, 성희롱 등을 질문한 윤리적 측면 5문항, 강간, 성폭력, 음란물 등을 질문한 사회문화적 측면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예/아니오의 응답방식으로 질문되어 있고 각 문항은 성지식의 정확성을 묻고 있으며 옳은 응답의 경우 1점, 틀린 응답의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까지의 범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

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 (1986)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86$ 이었다.

성태도

본 도구는 Lief와 Payne (1975)이 개발한 Sexual Knowledge & Attitude Test (SKAT) 도구를 Kim (1986)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그 문체나 서술을 재수정·보완하여 간호학 교수 2인과 국문학 교수 1인에게 자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이 중 몽정, 자위행위, 피임, 에이즈 등을 질문한 신체 생리적 측면 5문항, 성적 호기심, 성충동 등을 질문한 심리적 측면 5문항, 인공임신중절, 순결, 성윤리, 청소년 성문제 및 비행 등을 질문한 윤리적 측면 7문항, 성폭력, 성문제 의논대상, 성지식매체 등을 질문한 사회문화적 측면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점수는 리커트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의 4점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저 25점에서 최고 100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으로 보며 하위차원별로는 신체생리적, 심리적, 그리고 윤리적 측면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은 개방적으로 해석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 (1986)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 .8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76$ 이었다.

성가치관

본 도구는 Nho (2006)의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성관 4문항, 성역할 4문항, 순결관 5문항으로 재구성된 총 13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를 사용하기 전 먼저 문체나 내용에 대하여 간호학 교수 2인과 국문학 교수 1인에게 타당도 자문을 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아니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정적, 성평등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Nho (2006)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 .7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78$ 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연구의 진행상 먼저 학교장 및 연구교사와의 전화 상담을 통하여 일차적 면담 허락을 구한 후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인이 함께 학교 방문하여 구체적인 연구 목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들의 허락하에 각 교실을 방문하고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후 동의하는 학생들에게 연구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설문응답과정에서 원한다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2009년 4월 2일부터 3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배포한 총 900부의 설문지 중 856부가 회수되어 95%

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이 중 불성실한 질문지 21부를 제외한 총 835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의 총 문항 수가 63개로서 최종 분석 자료 835부는 문항 수의 10배를 초과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통계적 검증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인 SPSS 14.0을 이용하여 성지식, 성태도 및 성가치관 평균을 구하였으며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및 성가치관의 차이는 t-test, F-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중학생이 51.4% (429명), 고등학생이 48.6% (406명)이었다. 형제들 중에서의 위치는 형과 동생이 다 있는 경우 10.7% (89명), 윗형제만 있는 경우 31.0% (259명), 동생만 있는 경우 48.5% (405명), 혼자인 경우 9.8% (82명)이었다. 가정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2.4% (104명), 보통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은 62.4% (521명), 개방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5.2% (210명)이었다. 성교육을 받은 경험에 관하여서는 받은 적이 있다 94.4% (788명), 없다 5.6% (47명)로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문제에 관하여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해 본 결과, 심각히 해본 적이 있다 1.3% (11명), 보통정도로 고민해본 적이 있다 60.4% (504명), 그리고 결코 해본 적이 없다 38.3% (319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성교제 경험에 대하여 있다 62.1% (519명), 없다 37.9% (316명)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접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조사된 질문에서 본 적이 있다 44.6% (372명), 없다 55.4% (463명)로 나타났다(Table 1).

성지식, 성태도 및 성가치관의 평균

여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가치관 및 그 하위차원별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지식은 평균 14.44점(4.25)이었으며 하위 차원으로 신체생리적 4.08점(2.00), 심리적 3.27점(1.67), 윤리적 3.48점(1.32), 사회문화적 3.61점(1.41)이었다. 성태도는 79.12점(7.44)으로 하위차원을 조사해 본 결과 신체생리적 16.18점(2.05), 심리적 16.78점(2.25), 윤리적 22.81점(2.46), 그리고 사회문화적 23.35점(2.82)으로 나타났다. 성가치관은 43.77점(5.80)으로 하위 차원을 살펴보면 이성관 12.77점(2.02), 성역할 14.86점(2.18), 순결관 16.14점(2.48)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

여학생들의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성지식 전반에 있어서 보수적 분위기, 개방적 분위기, 그리고 보통분위기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630, p=.006$). 이를 다시 하위차원에서 보면 신체생리적($F=4.858, p=.003$), 심리적($F=8.290, p=.005$),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F=7.774, p=.004$)의 세 영역에서 보수적분위기, 개방적분위기 그리고 보통분위기의 순으로 성지식정도에 차이가 유의하게 있었다. 그러나 윤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방적 분위기, 보수적 분위기 그리고 보통분위기 순으로 나타나($F=3.367, p=.031$) 다른 하위차원의 세 영역과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성친구교제 경험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경험 학생들이 무경험학생보다 유의하게 총 성지식이 높았으며($t=1.968, p=.022$) 이를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신체생리적 측면($t=2.373, p=.035$)과 심리적 측면($t=3.290, p=.004$)에서 유의하게 유경험

학생들이 높았다.

음란물접촉경험의 유무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에서는 총 성지식 뿐만 아니라($t=8.728, p=.004$) 하위차원의 신체생리적 측면($t=7.092, p=.003$), 심리적 측면($t=8.319, p=.004$), 윤리적 측면($t=5.004, p=.004$),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t=7.354, p=.001$)의 모든 영역에서 접촉을 해 본 유경험 학생들의 성지식이 유의하게 높게 조사되었다(Table 3).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가정 분위기의 경우 전체 성태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차원별로 조사해 본 결과 신체생리적 측면($t=10.620, p=.003$) 및 심리적 측면($t=3.957, p=.041$)의 두 차원에서 보수적 분위기 및 개방적 분위기가 보통분위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성친구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경우 성태도 전체로서는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차원별로 다시 살펴본 결과 신체생리적 차원에서는 유경험 학생이 유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835)

	Characteristics	n (%)
School	Junior high school	429 (51.4)
	Senior high school	406 (48.6)
Sibling status	Older & younger both	89 (10.7)
	Olders only	259 (31.0)
	Youngers only	405 (48.5)
Home atmosphere	Alone	82 (9.8)
	Conservative	104 (12.4)
	Moderate	521 (62.4)
	Open	210 (25.2)
Sexual education experience	Yes	788 (94.4)
	No	47 (5.6)
Agony level related to the other sex friend	Severe	11 (1.3)
	Moderate	504 (60.4)
	Never	319 (38.3)
Experience to have the other sex friend	Yes	519 (62.1)
	No	316 (37.9)
Experience related to porno	Yes	372 (44.6)
	No	463 (55.4)

Table 2. Mean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Perspectives of Sexual Value

	Mean	SD	Range
Sexual knowledge	14.44	4.25	0-25
Physical-physiological	4.08	2.00	0-9
Psychological	3.27	1.67	0-6
Ethical	3.48	1.32	0-5
Socio-cultural	3.61	1.41	0-5
Sexual attitudes	79.12	7.44	25-100
Physical-physiological	16.18	2.04	5-20
Psychological	16.78	2.27	5-20
Ethical	22.81	2.42	7-28
Socio-cultural	23.35	2.81	8-32
Perspectives of sexual value	43.77	5.89	13-65
Perspectives of the other sex	12.77	2.02	4-20
Sex role	14.86	2.18	4-20
Perspectives of virginal purity	16.14	2.48	5-25

Table 3. Sexual Knowledge of the Subjects

		Sexual knowledge			Physical-physiological			Psychological			Ethical			Socio-cultural		
		Mean	t/F (p)	Scheffe	Mean	t/F (p)	Scheffe	Mean	t/F (p)	Scheffe	Mean	t/F (p)	Scheffe	Mean	t/F (p)	Scheffe
Home atmosphere	1	15.65	8.630 (.006)	1>3>2	4.41	4.858 (.003)	1>3>2	3.72	8.290 (.005)	1>3>2	3.57	3.367 (.031)	3>1>2	3.95	7.774 (.004)	1>3>2
	2	13.83			3.90			3.09			3.38			3.47		
	3	15.06			4.26			3.42			3.63			3.75		
Experience to have the other sex friend	Yes	14.63	1.968 (.022)		4.18	2.373 (.035)		3.39	3.290 (.004)		3.48	0.366 (.064)		3.59	-0.327 (.077)	
	No	13.94			3.85			3.02			3.45			3.62		
Experience related to porno	Yes	15.97	8.728 (.004)		4.56	7.092 (.003)		3.74	8.319 (.004)		3.70	5.004 (.004)		3.96	7.354 (.001)	
	No	13.07			3.64			2.86			3.27			3.30		

1 = conservative; 2 = moderate; 3 = open.

하게 높았고($t=3.643, p=.002$), 윤리적 차원에서는 무경험 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095, p=.004$).

음란물접촉경험의 유무에 따른 전체 성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경험자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를 다시 하위차원별로 조사하였을 때 신체생리적 측면($t=10.570, p=.004$), 심리적 측면($t=2.527, p=.045$), 윤리적 측면($t=2.226, p=.021$), 사회문화적 측면($t=4.152, p=.005$)으로 유경험자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가치관 차이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가치관의 차이는 가정 분위기의 경우 전체 성가치관은 보수적 분위기, 개방적 분위기, 그리고 보통분위기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3.758, p=.022$). 이를 하위차원별로 조사해 본 결과, 순결관에서 보수적 분위기, 개방적 분위기, 그리고 보통분위기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3.000, p=.011$). 이성친구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성가치관의 경우 교제경험 학생이 무경험 학생보다 유의하게 전체 성가치관이 높았으며($t=2.390, p=.031$) 이를 하위차원별로 다시 살펴본 결과 이성관에서는 교제경험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았으나($t=3.957, p=.002$), 성역할과 순결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음란물접촉경험의 유무에 따른 성가

치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가치관 전체($t=5.595, p=.002$), 이성관($t=4.365, p=.003$), 성역할($t=1.959, p=.024$), 그리고 순결관($t=5.105, p=.004$) 등 하위차원 모두에서 유경험자가 무경험 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논 의

오늘날의 성은 서구문명의 유입으로 개방 풍조가 만연해 있고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 접근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용이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성을 금기시 하고 남녀에게 다른 성 규범을 적용하는 암묵적이고 이중적 성 윤리관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가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꺼려하고 학교는 대학입시라는 국민적 과제 앞에 피상적인 성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분위기, 이성친구교제 경험, 음란물 접촉경험 등의 성관련 특성에 따른 여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가치관 차이를 파악하여 여학생의 성교육에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여학생들의 성지식은 평균 14.44점으

Table 4. Sexual Attitudes of the Subjects

		Sexual attitudes		Physical-physiological			Psychological			Ethical		Socio-cultural	
		Mean	t/F (p)	Mean	t/F (p)	Scheffe	Mean	t/F (p)	Scheffe	Mean	t/F (p)	Mean	t/F (p)
Home atmosphere	1	79.72	2.426 (.072)	16.39	10.620 (.003)	1,3>2	15.47	3.957 (.041)	1,3>2	21.28	0.209 (.068)	23.58	0.546 (.072)
	2	78.71		15.85			15.02			21.34		23.49	
	3	79.85		16.53			15.44			21.22		23.71	
Experience to have the other sex friend	Yes	78.99	-0.715 (.061)	16.28	3.643 (.002)		15.09	-1.691 (.061)		21.11	-3.095 (.004)	23.53	-0.353 (.085)
	No	79.34		15.78			15.34			21.62		23.60	
Experience related to porno	Yes	80.77	6.219 (.004)	16.83	10.570 (.004)		15.39	2.527 (.045)		21.50	2.226 (.021)	23.98	4.152 (.005)
	No	77.79		15.49			15.02			21.15		23.21	

1 = conservative; 2 = moderate; 3 = open.

Table 5. Perspectives of Sexual Value of the Subjects

		Perspectives of sexual value			Perspectives of the other sex		Sex role		Perspectives of virginal purity		
		Mean	t/F (p)	Scheffe	Mean	t/F (p)	Mean	t/F (p)	Mean	t/F (p)	Scheffe
Home atmosphere	1	44.78	3.758 (.022)	1>3>2	12.08	2.142 (.068)	13.44	1.536 (.059)	15.99	3.000 (.011)	1>3>2
	2	43.38			11.67		13.23		15.42		
	3	44.24			11.82		13.50		15.68		
Experience to have the other sex friend	Yes	44.13	2.390 (.031)		11.96	3.957 (.002)	13.36	0.775 (.062)	15.58	0.466 (.066)	
	No	43.18			11.43		13.25		15.50		
Experience related to porno	Yes	44.95	5.595 (.002)		12.07	4.365 (.003)	13.48	1.959 (.024)	16.01	5.105 (.004)	
	No	42.82			11.05		13.20		15.19		

1 = conservative; 2 = moderate; 3 = open.

로서 본 도구가 총 25점 만점인 것에 비교하여 볼 때 58% 정도에 해당하여 30점 만점에 53.3% (16.0점)를 보인 여고생(Kim & Lee, 2000)의 것과 비교하였을 때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었지만 성지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수는 아니었다. 한편 네 가지 하위차원 중에서는 범위를 고려하여 백분율로 비교하였을 때 사회문화적 측면이 72%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나, Kang, Song과 Lim (2005)의 연구에서는 생리적 측면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하여 서로 달랐다. 이렇게 성지식 정도가 높지 않고 또한 하위차원에서도 연구에 따라 서로 일관된 성지식 수준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성지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조사시점, 이성교제경험, 성교육경험, 친한 친구의 성향 등이 서로 다르며 또한 학교의 성교육정도도 눈높이에 맞춘 표준화된 과정을 통해 성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지식 출처도 친구(Kang, Song, & Lim, 2005), 학교(Kim, Yang, & Jung, 2000), 매체(Kim, Lee, & Jung, 2001) 등으로 다양했기 때문에 추후 오늘날의 여학생은 어떤 요인들을 통하여 성지식을 가장 많이 얻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성태도의 평균은 79.12% (79.12점)로서 이는 50점 만점에 45.72% (22.86점)를 보인 Kang, Song과 Lim (2005)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본 연구대상이 더 긍정적이면서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었다. 한편 네 가지 하위차원 중에는 범위를 고려하여 백분율로 살펴볼 때 성적 관심, 성충동, 음란물 관심 등을 질문한 심리적 측면이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심리적으로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성태도 연구 시에 성태도를 측정하는 여러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개방적(Kim, Jeon, & Kim, 2004), 긍정적(Kim, Yang, & Jung, 2000), 개방적, 긍정적, 내지는 적극적(Kim, Lee, & Jung, 2001)으로 정의하고 있어 상호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풍조와 청소년들의 상황에 적절한 표준화된 성태도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한편 성가치관은 평균 44.67점으로 총 65점 만점에 68.72%에 해당되었고 이는 40점 만점에 75.02%에 해당되는 30.09점을 보인 Min, Lee와 Kim (2006)의 것보다 낮은 것이었다. 또한 하위차원 중에서는 성역할 영역이 백분율로 보았을 때 74.3%로 가장 높았지만 이것도 높은 것을 볼 수 없어 성역할에 있어서 만족할 수준의 성공정적, 성평등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낮게 조사된 본 결과는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성공정적, 성평등적 성향이 낮았다고 한 것(Min, Lee, & Kim, 2006)과 비교할 때 유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학생의 성가치관은 아직 낮은 성공정적, 성평등적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가치관은 점수가 높을수록 성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며 보다 많이 인식하며 이중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성공정적, 성평등적 의식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Min, Lee, & Kim 2006)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학생으로서 성가치관을 향상시켜 줄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가정분위기의 경우, 성지식 총점과 하위차원 중 윤리적 측면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보수적, 개방적, 보통 순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성 문제에 대해 부모가 부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청소년들이 성지식 수준이 낮고 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한 것(Fisher et al., 1989)을 고려한다면 보수적인 가정으로 지각한 학생들의 부모가 성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나 사료되었지만 비교할 수 있는 연구를 파악할 수 없어 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0.525시간 미만으로(Kim & Lee, 1995)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성을 금기시하고 폐쇄적이며 부정적인 것으로 덮어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Choi, 2003) 사료된다. 한편 윤리적 차원의 경우는 가정 분위기가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 여학생들의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 둘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추후 연구를 통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성친구교제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이성을 사귀 경험에 있는 학생들에게서 성지식의 전체 및 신체생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의 지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연구는 찾지 어려웠지만 성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없는 학생에 비하여 성지식이 높았다는 연구(Kang, Song, & Lim, 2005)로 간접적으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었다. 결국 청소년들의 이성친구교제는 피할 수 없는 성장과정이기 때문에 부모와 학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음란물접촉 경험의 유무에 대하여 성지식 전체와 하위척도 모두에서 접촉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Kim, Lee와 Jung (2001), Paek과 Chaung (2006)의 음란물접촉자의 성지식이 비접촉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같은 결과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미루어 볼 때(Kim, Yang, & Jung, 2000) 성지식 정도는 사춘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성지식은 음란물접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Park, Moon, 2003)을 고려할 때 여학생들의 성지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할 때 성지식과 음란물접촉의 관계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정분위기의 경우 성태도 전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보수적 및 개방적 분위기로 응답한 여학생들의 신체생리적 차원 및 심리적 차원의 성태도가 보통 분위기로 응답한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아 더 긍정적이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하면 이성교제의 경우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이성교제를 간섭하고 귀가 시간을 통제하는 것 등일 것이며 개방적인 경우 이성친구교제를 암묵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 본 연구에서 상반되는 가정분위기의 청소년 자녀들이 신체생리적, 심리적 차원의 성태도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의미 있어 보였다. 그러나 이것을 비교

하여 논할 수 있는 연구를 찾기 어려워 추후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정분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이성교제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신체생리적 및 윤리적 차원 중 먼저 신체생리적 차원에서 교제경험 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 영역은 여학생들의 신체변화, 감정, 자위행위 등에 관한 태도를 조사한 것으로서 이성교제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순결, 남녀의 성평등 이념 등을 조사한 윤리적 차원에서는 무경험 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 또한 비교할 수 있는 연구를 찾기 어려워 심층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음란물접촉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분석결과에서 성태도 전반 및 하위차원 모두에서 유경험자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음란물접촉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성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Park과 Moon (2003)의 연구에서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음란물 접촉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음란매체가 청소년의 성적 비행 및 일탈행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Kim, 1998) 음란 매체의 접촉 및 이용은 청소년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Ko & Ji, 2002)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음란매체물 접촉은 부모나 학교에서 주의깊게 살피고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가정 분위기의 경우 전체 성가치관은 보수적, 개방적, 그리고 보통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하위차원 중에서는, 순결관에서만 보수적, 개방적, 그리고 보통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가치관은 성태도를 유발하는 중심개념으로서 성공정적이고 성평등적인 성향을 보는 것을 볼 때(Min & Kim, 2005) 청소년의 성행동의 방향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수적 분위기 가정의 여학생의 성가치관이 가장 높았던 것에 유의하여 부모의 어떤 관점이 가정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성친구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성가치관의 경우, 교제경험 학생이 무경험 학생보다 유의하게 전체 성가치관이 높았으며 하위차원 중에는 이성관에서 교제경험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아 성공정적, 성평등적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이성친구교제가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학교나 사회는 그룹 활동 등을 통하여 이성을 알 수 있는 건전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음란물접촉경험의 유무에 따른 성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가치관 전체와 하위차원 모두에서 유경험자가 무경험 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아 음란물 접촉 여학생이 더 성공정적, 성평등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와 반대되는 것으로 음란매체는 청소년의 성적 비행 및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성가치관과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Kim (1998)의 연구나 인터넷 음란물 접촉학생과 성비행 경험 간에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Yang과 Cho (2004)의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었다.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직도 여학생의 성가치관에 관한 연구의 부족으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성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Min & Kim, 2005) 이들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지식 변화는 단기간 내에 가능하겠지만 성태도 및 성가치관은 오랜 시간을 걸쳐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Min & Kim, 2005) 여학생의 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제 역할이 있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도구로 인하여 상호 비교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관련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성지식, 성태도 및 성가치관의 표준화된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고 여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가치관을 파악하고 또한 이것이 성관련 특성인 가정분위기, 이성교제경험 및 음란물 접촉경험 유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성지식은 가정분위기가 보수적인 경우, 이성교제경험과 음란물접촉경험이 있을 때 높았으며 성태도에서는 음란물접촉경험 학생이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이었다. 한편 성가치관의 경우 가정분위기에서 보수적인 경우 더 성공정적, 평등적이었음을 보였고 이성교제경험과 음란물접촉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성공정적, 평등적이었음을 보였다.

본 연구가 다른 유사 연구에 비하여 차이점은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이 성지식이 높고 성태도가 긍정적이며 성가치관이 더 성공정적, 평등적이었다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과의 다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된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Chang, S. B., Kim, S., Han, I. Y., Park, Y. J., Kang, H. C., & Lee, S. K. (2001).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of coitus of teenage gir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921-931.
- Choi, S. H. (2003). The collapsed sex culture. How will you build again. *Creativity Development Research*, 6, 205-222.
- Fielding, J. E., & Williams, C. S. (1991). Adolescent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clinicians and research need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7, 47-52.
- Fisher, W., Grenier, G., Watters, W., Lamont, J., Cohen, M., & Askwith, J. (1989).

- Students' sexual knowledge, attitudes toward sex and willingness to treat sexual concerns. *Siaccan Journal*, 4, 36-42.
- Grauggard, C. L., Rasmussen, B., & Boisen, K. A. (2002).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young danes. A Questionnaire study. *UgeskrLadger*, 164, 4810-4814.
- Kang, S. E., Song, E. J., & Lim, E. J. (2005). Difference i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gir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7, 753-761.
- Kim, H. K., Choi, S. J., Kim, M. Y., Yang, K. M., & Lim, M. L. (1999). A study of the content analysis on the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for the adolesc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6, 167-185.
- Kim, H. S. (1998).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xtent of internet exposure and modelling to media violence and pornography between student adolescents and dilynqu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7, 151-164.
- Kim, H. W., & Lee, H. Y. (2000). Suggestions for the adolescence sex education on the bases of their need and necessit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5, 29-45.
- Kim, K. H., Jeon, M. S., & Kim, S. K. (2004). Relationship of sexual attitude, sexual identity and sexual permissiveness in junior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11, 353-360.
- Kim, U. H., & Jung, M. S. (1993).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 sexual experience and need of sex education of high school girls in Taegu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0, 40-55.
- Kim, S. (1986). A survey of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need of urban adolescents. *Yonsei Nursing Science Research Center*, 9, 1-12.
- Kim, S. J., Yang, S. O., & Jeong, G. H. (2000). Change of the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the primary school children through sexual educ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6, 316-328.
- Kim, Y. H., Lee, H. Z., & Jung, H. M. (2001). A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on the exposure to PC pornography of the middle school boys in Busan.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7, 62-73.
- Kim, Y. J., & Lee, H. K. (1995). The effect of sex education for high school girl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sex.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 35-53.
- Ko, J. H., & Ji, Y. D. (2002). The roles of several mediators and moderators between pornography and rape myth.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0, 87-105.
- Korea Telecom Culture Foundation. (2004). *A survey on actual condition of adolescent internet use*. Retrieved June 2, 2011, From http://www.zlet.or.kr/z.magazine/010_page7.asp
- Lief, H. I., & Payne, T. (1975). Sexuality knowledge and attitud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5, 2026-2029.
- Min, H. Y., & Kim, K. H. (2005). Parent's suppor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sexual valu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59-71.
- Min, H. Y., Lee, Y. M., & Kim, K. H. (2006).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xual knowledge and their sexual values and interes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 171-179.
- Nho, M. Y. (2006). *A comparative on sex-consciousness and sexual values between urban and rural elementary schoolers*. Masters' Thes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ek, K. S., & Chaung, S. K. (2006).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related factors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7, 376-386.
- Park, J. S., & Moon, J. W. (2003).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actual practice of sex among middle school girls in Seoul. *Health and Social Science*, 14, 343-370.
- Yang, D. K., & Cho, N. K.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 of the internet obscenities and sexual delinquencies. *The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2, 325-347.